

#4 <인사말>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

지난해 말, 본 재단은 창립 5주년 기념행사에서 “재도약! 2010 딸들에게 희망찬 미래를!”이란 기치아래 사각지대 소외여성들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21세기가 요구하는 여성리더십을 키워나가는 일에 주력하기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재단의 몫으로 ‘나눔의 문화’ ‘더불어 사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어느덧 2005년 한 해를 보내고, 재단의 1년 활동을 총 결산해보니, 연중 모금사업인 기업공동캠페인과 다양한 1%나눔을 통해 올 한 해, 약 8천만 원의 한국여성기금이 새로 적립되어, 11월 15일 현재, 총 7,926,307,670원의 한국여성기금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 본 재단 지원사업은 다양한 물품후원과 아울러 한국여성기금, 대외협력사업 등으로 총 86개 사업에 841,64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 한국여성기금의 과실로 지원되는 2006년 정기신청공모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분야 17개 사업에 총 199,941,000원, 여성복지분야 10개 사업에 총 79,940,000원을 지원 확정했습니다. 2005년에는 총 34개 사업, 총 345,490,000원을 지원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여성을 위한 기부금조성 환경이 미흡하고, 기부자분들의 정성을 보전하자는 목적으로 한국여성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지원하다보니, 2006년에는 축소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부터 모금활동의 방향을 전환하여 추진된 기획사업, 대외협력사업 등 영구기금이 아닌, 사업지원금 모금으로는 4억6천여만 원을 조성, 직접사업비로 지원되어 작은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는 뜻을 함께한 한화, 한화 건설, 개인기부자들과 함께 지원의 사각지대에 처한 여성노숙인을 위한 국내 최초의 드림인센터인 ‘우리들의 좋은집’을 마련했고,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소외당했던 빅위민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당당히 새로운 미의 가치기준을 세우고 외모차별주의 철폐를 선언하는 ‘빅우먼패션쇼’를 성공리에 개최했으며, 방송시간대를 기부한 CJ홈쇼핑 방송을 통한 모금방송을 통해 일반기부자에게 저소득층 여성가장들의 현실을 알리며,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불임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 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을 결정하면서, '새생명 새희망! 불임 치료 지원사업'을 위한 민관공동협약을 맺고, 민간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불임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삼성정밀유리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성사시켜, 모범적인 민관합동의 사회적과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 설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바람직한 모델로 저소득층 여성가장들이 전문 헤어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창업지원을 해주기로 나선 박승철 헤어스튜디오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교보생명의 지정기탁으로 여성공익활동가의 역량강화지원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찬사를 받아왔던 '짧은 여행, 그리고 긴 호흡' 사업도 총 18개 연수팀, 총 120개 단체의 237명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여성공익활동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지원사업도 지원하기 위해, 그 기초 조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리더십을 키워나가는 사업으로는 지난 2004년에 '새날기금'으로 조성된 기금 중 약 8천만 원이 2005년 환경, 노동, 평화, 농민, 인권 총 5개 사업 분야에 지원되어 파트너기관 여성들의 노고로 훌륭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획모금사업으로 다양한 가족을 존중하고, 소외가족을 지원하자는 의미의 '행복한 가족기금'을 설치, 본 재단의 대표적인 모금캠페인인 100인기부 릴레이를 통해서 약 6천만 원을 조성, 전액 2006년 총 7개 사업에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본 재단의 주도적 추동으로 발족된 '(사)미래포럼'도 사회적 과제를 5차에 걸친 공개포럼을 통해 여론화 시키고, 기업과 NGO가, 민과 관이 함께 현안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면서 '나눔의 문화', '더불어 사는 문화' 조성을 위한 재단의 몫에 대해 일정정도 사회적 기여를 한 성과로 남았습니다.

2005년,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고로 맺어진 결실들을 돌아보니, 차리티(Charity-자선행위)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필란트로피(Philanthropy-나눔의 행위)로 점차 사회공헌의 패러다임이 진일보되고 있다는 성과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본 재단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여성들의 밝은 미래를 향해 다가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나눔으로 소중한 정성을 더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일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활동해 주시는 여성공익활동가들에게 2005년 한국여성재단의 사업결실을 바칩니다.